



미드나잇 인 파리

전남대 박물관 문화강좌 ‘내 인생에 스며든 영화, 한 모금’ 9월 21일, 이수원 교수 ‘파리, 아름다움과 광기’로 스타트

# 영화, 문화강좌로 감상한다

‘파리, 아름다움과 광기의 시대’, ‘천만영화 이야기’, ‘영화 제작에 관한 이야기’, ‘고전영화의 아우라’...

영화를 매개로 한 문화강좌가 열려 눈길을 끈다. 강좌 외에 ‘친절한 금자씨’,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 등 영화가 무료 상영될 예정이어서 영화라는 예술 장르를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다.

전남대 박물관은 오는 9월 21일부터 12월 7일까지 문화강좌 ‘내 인생에 스며든 영화, 한 모금’을 개최한다. 박물관 4층 시청각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첫 강좌는 9월 21일 영화평론가인 이수원 전남대 불문과 교수가 ‘파리, 아름다움과 광기의 시대’ 주제로 시민들을 만난다. 영화는 ‘미드나잇 인 파리’를 감상할 예정이다.

9월 28일에는 한상연 영화연구소장이 ‘알레고리로 영화 읽기’를 주제로 강연하며 상영 영화는 ‘친절한 금자씨’다.

이어 김종철 한양대 연극영화학과 교수가 ‘천만영화 이야기’를 주제로 강연하며 ‘광해, 왕이 된 남자’를 볼 예정이다.

다음으로 ‘경계인이지만 분노와 사랑은 경계하지 않습니다’ (고영재 한국독립영화협회 이사장), ‘쿠바 음악의 기적!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 (송기철 음악평론가), ‘다큐멘터리 영화, 그대를 향해 한 송이 꽃을 들어보이다’ (진모영 영화감독), ‘길림돌을 디딤돌로’ (유지나 동국대 영화영상학과 교수)의 강연이 예정돼 있다.

이어 영화 제작에 관한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도 마련돼 있다. 박기복 영화감독이 ‘영화제작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낸다. 아울러 이기중 전남대 문화인류고고학과 교수는 ‘어느 인류학자의 (인생) 여행 이야기’를 주제로 시민들을 만나며 김규중 경북대 노어노문학과 교수는 ‘장예모의 영화 ‘인생’에 담긴 개인과 역사’를 풀어낼 예정이다.

극장의 미래를 가능할 수 있는 강연도 진행된다. 김형수 광주극장 전무이사는 ‘극장은 영화의 미래?: 시대에 따른 극장의 변천사’를 매개로 이야기를 펼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민진영 전남대 불문과 교수가 ‘고전영화의 아우라: 영화아카이브의 현대적 활용’을 강연함으로써 강좌가 막을 내린다.

수강 접수는 오는 30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300명. 수강료 일반 11만원, 만 65세 이상 경로자와 전남대 교직원 및 가족은 9만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친절한 금자씨

## 27m 캔버스에 펼쳐진 삶의 여정 이명숙 초대전 28일까지 보성군립백미술관

‘대형 회화 작품으로 풀어낸 생명의 존엄성.’ 이명숙 작가 초대전이 오는 28일까지 보성군립백미술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미술관이 지역 중견 작가를 초청, 예술적 실험을 지원하는 기회 전이다.

이번 전시에서 이 작가는 27m 초대형 회화 작품 ‘Life fantasy’ 연작을 전시장에 펼쳐놓았다.

부드러운 자연광과 어우러져 색다른 관람 포인트를 제공하는 이번 전시작은 작가가 끊임없이 생성되는 생명의 존재를 떠올리며 작업한 작품이다. 작가는 “개체로써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유한하나 그 삶의 공간은 무한히 생성되며 끊임없이 진행되는 우주의 섭리를 표현하고 싶었다”고 말한다.

작품은 9m 작품 3점으로 분리 제작됐으며 이번 전시를 통해 온전히 하나의 작품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작가는 이번 전시를 계기 삼아 4번째, 5번째 연작을 지속적으로 제작, 향후 수시점이 연결된 대형 회화 작품을 완성할 계획이다.

전시 서문을 쓴 윤익 평론가는 “오방색의 자유



Life Fantasy

롭게 유영하는 선으로 구성된 생명체의 형상은 우주 혹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생명체들이 갖는 삶의 여정으로 느껴진다”며 “물과 바람의 형상이 순환하듯 생명의 에너지가 순환하며 영원히 생성하는 삶의 환희를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익대 회화과를 졸업하고 미국 미시간대학교에서 수학한 이명숙 작가는 미국, 프랑스, 러시아 등에서 22차례 개인전과 국내외 200여회의 단절전, 기획전 등에 참여했으며 9월 열리는 KIA아트프도 참가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주)디자인바이, 굿디자인 어워드 5관왕 ‘영예’

‘2022 대한민국 굿디자인 어워드(GOOD DESIGN AWARD)’에서 광주지역 디자인기업이 출품한 디자인 5종이 ‘GD(우수디자인)’에 선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굿디자인’은 1985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는 우수 디자인 인정제도로 올해 상용화된 응모작 중 심미성, 독창성 등을 종합평가해 선정한다.

제품디자인 전문회사 (주)디자인바이(대표 최태욱)는 ‘카나리아 대기질 측정기’ 등 제품디자인 5개가 ‘굿디자인(GD)’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카나리아 대기질 측정기’는 자동차, 사무실, 가정 등에서 사용하는 소형 대기질 측정 제품으로 옛날 광부들이 경도 안의 가스 누출을 감지하기

위해 카나리아를 가지고 들어가 채굴하던 사례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했다. 또 세비앙(주)과 함께 개발한 ‘씨워터 핸드즈’는 세계 최초로 ‘비접촉 근접 센서식’ 자동 스프레이 시스템을 적용한 접촉성 감염병 예방 살균제품으로 혁신성도 인정받았으며 제로웰(주)와 공동 개발한 ‘휴대용 미니 공기청정기’도 선정됐다.

그밖에 ㈜현대렌탈서비스와 공동 개발한 ‘유버스 정수기’는 돌출형태의 차별화된 디자인과 이용 편리성 등 사용자에 배려했다는 점을, ㈜신양씨앤에스에 납품된 경기장용 의자 ‘슬로우 폴딩체어’는 내구성과 오염에 취약한 경기장 플라스틱 의자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아이디어가 돋보였다는 점을 평가받았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휴대용 미니 공기청정기

## 조태일문학상에 보성 출신 송경동 시인

9월 3일 조태일시문학축전

보성 출신 송경동(사진) 시인이 제4회 조태일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수상시집은 ‘꿈꾸는 소리 하고 자빠졌네’이며 상금은 2000만원.

조태일기념사업회는 제4회 조태일문학상 수상자로 송경동 시인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시집은 삶의 현장에서 노동자와 함께 해온 삶이 곧 시이며 문학이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사회적 약자들의 참상을 증언하는 빼어난 기록이자 이를 넘어서기 위한 사람과 연대의 시라는 평가다.

이번 조태일문학상에는 공모와 추천을 통해 접수된 시집을 대상으로 심사가 진행됐다.

심사위원회는 “조태일 시인의 문학정신과 얼마나 그 연결의 수평적 고리가 닿아 있는가. 거기에 더하여 또한 시대정신을 잃지 않고 살아있는 시인의 문학적 실천성은 얼마나 담보되어 있는가”를 살펴봤을 때 송경동 시인의 이번 시집은 부합한 작품집이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송경동 시인은 수상소감에서 “제가 감히 조태일이라는 이름을 감당할 수 있을지 두렵기만 하다”며 “결국 이렇게 조태일이라는 짐을 져야 한다면 어디에서 꺼꾸러지든, 자빠지던 작은 풀씨 하나 되어 후회 없이 주어진 이 길을 걸어가 보겠다”고 밝혔다.

송경동 시인은 지난 2001년 ‘내일을 여는 작가’와 ‘실천문학’으로 작품활동을 시작했으며 시집 ‘꿈꾸는 소리 하고 자빠졌네’, ‘나, 한국인이 아니다’ 등을 펴냈다. 2011년 희망버스 기획자로



구속된 바 있으며 2018년 파인텍 해고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단식 등을 펼쳤다.

현재 사회연대협력 인드라망 기획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곡성군과 즉형조태일시인기념사업회는 오는 9월 3일 오후 3시 곡성 조태일시문학기념관에서 조태일 23주기 문학축전을 연다.

이번 무대는 김민정(석곡초 5학년) 외 3명의 곡성 어린이가 조태일 시인의 시 ‘눈물’을 낭송하는 것으로 문을 연다.

또한 조태일 시인이 재직했던 광주대 문예창작과 제자이기도 한 손병현 소설가가 이야기 손님으로 초대돼 학창시절 조 시인과 얽힌 일화 등을 소개하고 우리 지역에서 다양한 음악 활동을 펼치고 있는 ‘담소’는 조 시인의 시에 곡을 붙인 ‘그래도 봄은 오는가’, ‘물 바람 빛’을 노래한다. 아울러 바리톤 황성철, 소프라노 임정진 성악가는 ‘오 솔레 미오’, ‘축배의 노래’, ‘우정의 노래’ 등 성악 무대를 선보인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박선홍 학술상’ 첫 수상자에 김경수 소장

‘박선홍 학술상’ 첫 수상자에 향토지리연구가 김경수(62·전남남도문화재단위원, 향토지리연구소장·시인)씨가 선정됐다.

광주문화재단은 최근 박선홍 광주학술상 추천위원회를 열어 김경수 소장을 제1회 박선홍 학술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40여 년에 걸쳐 광주와 호남, 영산강 등의 지리를 연구해온 향토지리연구가다. 특히 ‘영산강 삼백오십리’는 민간인 연구자로 영산강 수계의 문화를 총체적으로 살펴본 책으로 손색이 없다. “박선홍 선생의 광주학연구의 계보를 잇는 최적의 인물로 평가돼” 수상자로 선정됐다.

전남대학교 출신으로 문학박사 학위를 받은 김 소장은 대학 졸업 후 교단에 몸담았다. 10여 년 전 해직 이후 향토지리연구에 몰두했으며 다양한 저서를 펴냈다.

구체적인 저서는 ‘광주동원역사’, ‘광주방 이야기’, ‘한국지명유래집 광주, 나주, 담양’, ‘경양방 죽과 태봉산지리’, ‘광주천 지리지’ 등으로 광주학



에 대한 왕성한 연구활동을 지속해오고 있다.

한편광주문화재단은 26일 오후 2시 박선홍 광주학술상특별세미나를 개최해 광주학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한다.

이번 세미나에는 안병욱 교수(가톨릭대학교 명예교수)가 ‘광주 역사와 문화의 광주학 탐구’를 주제로 기초강연하며 허민 교수(전 전남대 부총장)가 ‘박선홍과 무등산 세계지질공원’이라는 주제로 무등산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동순 교수(조선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는 ‘공간이 장소가 되는, 그런 공간을 위한 상상’을 주제로 공간과 장소를 통해 광주학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광주-대구 교류 음악회 ‘공존’

카메라타전남·디오 오케스트라, 9월7일 전남대 민주마루

사단법인 카메라타전남과 사단법인 디오 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영호남 교류 음악회 ‘공존’이 오는 9월 7일 오후 7시 30분 전남대 민주마루에서 열린다.

광주와 대구, 두 자매결연도시의 문화예술 교류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공연은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성악가들과 촉망받는 신인 성악가들이 무대를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베르디 ‘운명의 힘 서곡’으로 시작해 베르디 ‘신이여 평화를 주옵소서’, 칠레아의 오페라 ‘페데리코의 탄식’, 마스네 ‘사라지는 행복한 꿈’, 보이토 오페라 ‘페피스토펠레 중 어느날 밤 깊은 바다속에’ 등을 들려준다.

공연에는 박인욱 지휘자를 필두로 소프라노 이화영·나혜성, 테너 윤병길·권재희, 바리톤 공병우, 솔리스트양희우, 우송자 바리톤 박지민과 소프라노 권수지가 함께 한다.



박인욱

공병우

친숙한 오페라 속 작품들로 구성된 이번 프로그램은 오페라를 관현악 사운드보다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이다.

무료 공연으로 티켓 예매는 카메라타전남(010-7150-1033)을 통해 가능하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